사랑하는 보내는 선교사님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은 봄이 되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잎과 꽃으로 피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T국은 3월에 주말 외출금지가 풀리자 확진자가 4만명을 넘어섰고, A시에는 4월부터 다시 주말 외출금지령을(금요일 밤10~월요일 새벽5시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외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이웃 건물과 근접하여 커튼을 치고 콘크리트 벽을 보면서 지냈는데, 한국에 와서 산도 보고 바다도 보니 코로나의 압박감이 정서적으로 훨씬 견디기가 나은 것 같습니다.

기도제목

1. 어머니가 가족들도 잘 못 알아보고 미음도 쉽게 삼키지 못하는 상태여서 (부산 셋째 여동생집에 계시는) 어머니 병상을 지키는 일과 거제도 집을 오가며 지낼 것인데, 벌써 1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은 건강검진과 치과 치료, 동역자님들과 교제 등인데 지금은 이동이 자유롭지도 못하고 피차 조심해야하는 때라 비대면으로 지혜롭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집주인 할아버지가 코로나19의 후유증으로 3일마다 신장 투석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국에 오면서 집세를 2개월치 미리 송금했다고 전화를 드렸더니 할머니가 받으셔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해외에 거주하는 딸이 부탁할 일이 있다고 연락할 취하는 중에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서 병간호하고 있다고 3월 7일에는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저는 자가격리 중이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자가 격리하는 줄 알고 제 걱정을 했다고 전해와서 한국은 해외에서 입국하면 무조건 14일 격리하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고, 다음날 딸이 조금 차도가 있다고 연락을 했는데, 3월21일 돌아가셨다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I시에서 혼자 살아갈 할머니와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와 집계약을 올해 새롭게 할 것인지 월세와 기타 조건 등으로 이사 준비를 해야 할지 주께 지혜를 구합니다.
3. H 부인의 큰딸은 조산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했고 어려운 고비를 맞았지만 감사하게도 아기와 산모도 건강하게 퇴원을 했습니다. H부인이 큰손자와 작은 손자를 돌보면서 산모 뒷바라지까지 하느라 많이 피곤한 상태인데, 제가 한국에 있고 아무 도움이 못 된다고 했더니 저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신실한 회교도, 참 좋은 마음 밭을 가진 H부인이 복음은 받지 않고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선지자 중의 한 명이라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 이 가정의 기도제목과 구원에 관한 이유를 묻는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4. N 가정은 N의 남편 친구가 코로나였는데 남편도 감염되었고 임신 말기인 N도 걸려서 걱정했더니 비교적 가볍게 넘어가서 감사하고, 4월 하순 출산인데 순산과 복음이나 종교적인 대화를 피하고 있는 이 가정이 회심하는 섭리가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5. V자매와 온라인 주일 예배는 A국으로 90년대 과거로의 시간 여행 같은 새로움이 있고, A 와 성경읽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오디오 북카페 모임도 시차와 시간 계획을 잘 세워서 지속하도록 성실함과 의지를 드리고 성령의 풍성함에 거하도록 간구합니다.

2021. 4. 3. 김에스더 드림 (휴대전화 010 4283 9182)